

“대선가도 인재를 찾아라” 野 영입전 돌입

민주 영입위원장에 진영·원혜영... 첫 회의 열고 본격화 국민의당은 황주홍·장병완 선임... 호남 인재 등용 관심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인재 영입 전쟁에 돌입했다.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인재들을 영입, 당의 선대위 등에 포진시키면 대선을 앞두고 전문성과 미래 비전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외부인사 영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각 주자 캠프에만 인재영입을 맡겨두지 않고, 경선 이후 본선과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당 차원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사를 직접 발굴해 국민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인재영입위원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추미애 당대표는 “민주당은 외부에 넓은 문호를 개방해 수권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당 중심의 대선 승리를 견

인하는 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진영·원혜영 의원 두 명이 공동으로 맡았다.

경선을 통해 후보가 확정되면 당 차원에서 영입해둔 인사들까지 적극 활용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재영입위는 9명의 부위원장이 분야별로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벤처·청년창업(김병관), 과학기술(문미숙), 교육·문화(유은혜), 시민사회(이학영), 문화예술·법조(진선미), 경제·학계(최은영), 정책(김기식), 정부(서갑원), 대외협력(지용호) 등이다.

민주당 차원의 인재영입 방침이 조기 대선 체제에서 각 주자의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 구성 등과 맞물려 실제 등용까지 연결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당과 내각 구성과 관련 사전에 협의할 것”이라며 “예비 내각이 구성된다면 호남 인재들을 적극 중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도 1일 인재영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황주홍 최고위원과 장병완 의원을 선임했다.

또 대선기획단장에는 김영현 최고위원이,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정동영 의원과 문병호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릴 수권비전

위원장에는 김성식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조만간 손학규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 등이 합류한다면 당세 확장하고 함께 많은 인재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인재영입위에 국한하지 않고 당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반기문 불출마” 예언 적중

안철수·이재명·박지원·정두언 발언 화제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반 전 총장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정치인들의 발언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설 이전에 대선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17일 반 전 총장에 대

해 “완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역시 18일 라디오에서 반 전 총장을 “준비 안된 대통령 후보”라고 평가하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완주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달 20일 라디오에서 “반 전 총장은 이대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캠프 인사들도) 동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도 야도 ‘文 대세론’ 허물기

안철수 “근거 없는 모래성”... 정우택 “셀프 김치국”

‘문재인 대세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타 후보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문재인은 대선의 상수다”며 “일찍 찾아온 대세론에 취해 교만한 나머지 선거에 진 후 수순 사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전날에는 문 전 대표가 ‘반문’(반문재인) 연대에 대해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연대”라고 비판하자 “본인만 정권교체라 생각하는 교만한이 묻어나오는 표현”이라고 각을 세웠다. 앞서 “문재인 대세론은 근거 없는 모래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총남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바람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1호인 최성고양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높은 지지율과 대세론이 오히려 민주당 집권의 장애물과 덩어리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내 철저한 후보 정책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지금의 예비후보등록제가 운영될 경우 문재인 대세론을 포장하는 형식적 경선으로 전략적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

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가 스스로 대세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선주자 자신이 스스로 셀프 대세론을 공언하는 것은 듣기에도 민망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언제 여론이 출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셀프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며 “듣기에 따라서는 제왕적 대선주자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25년 하면서 수많은 대선주자를 보았지만 한국 정치의 특성상 대세론은 불과 몇달 만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대세론을 말하면서 기다리다 못해 왕관을 쓰려는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재인 대세론’ 허물기 공격은 더 이상 1인 독주 체제를 지속하도록 방조했다는 후보경선은 물론 대선 본선이 무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진행될 경우 대선구도도 크게 흔들리면서 대세론이 허물어질 것이라 기대가 섞인 공격이란 지적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관심 집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무도 몰랐던 潘의 결심

부인 등 누구와도 상의 안해... 캠프 인사들 ‘패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1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인을 포함해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반 전 총장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에 캠프 인사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날 오전까지도 반 전 총장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등 대선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를 예방하고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3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는 등 공식 일정을 목록화 소화했다. 여기에 유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의 캠프 합류 소식이 전해지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 이전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반 전 총장이 오후 3시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개헌에 대한 의지 표명’ 정도로 예측했다.

불출마 선언 직후, 반 전 총장은 캠프 핵심 인사들에게 결단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새벽에 고민한 끝에 발표문을 만들었다”며 “미리 상의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상의했다면 틀어 말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

“車 100만대 생산기지로 광주경제 혁신”

남경필 광주·전남언론포럼 토론회... “지역주의 타파”

바른정당 대권 주자로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일 “패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해도 지역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패권주의 타파를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광주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지역패권주의의 폐해로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 경북 주민들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그러나 “패권도 막아보고 지향하는 정책도 비슷해서 합쳐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문재인 빼고 다 모이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으로 군대를 못 지킬 지경인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나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는 것은 어차구니가 없고 무책임하다”면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기간 1년’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뽑아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천천히 복무 기간을 늘려야 국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지역 공약사업에 대해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산업구조로 지역경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자율주행 관련 학과 개설, 판교형 테크노밸리 광주전남 유치 등을 지역 사업으로 내놓았다.

/최권일기자 cki@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점 임점 매 13억(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임점 매 20억(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뷔페 임점 매 5억5천(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조정가)
- 나주 학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1층 약국임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462㎡ 매 10억3천(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441㎡ 매 8억(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담양군 남면 학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지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은열뜸, 아쿠뎀,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한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